

# First Week - A Shamed Sinner Before a Merciful God

## 첫째 주 - 자비로운 하느님 앞의 부끄러운 죄인

(Possible reading for opening prayer) Luke 15: 4-7, “The Lost Sheep”

(시작기도로 하는 독서) 루카 15:4-7, “잃어버린 양”

### Slide one: Preparation Days

슬라이드 1: 준비 기간

**SLIDE TWO:** In the Preparation Days we were graced with the knowledge that we were created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a loving God, and that we were created in love and are continually loved by God. By being created in God’s image and likeness we are given the ability to think, love, create and choose.

슬라이드 2: 준비기간 동안 우리는 사랑이신 하느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느님과 닮은 품성을 가진 존재로 빚어졌고, 사랑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느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은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느님과 닮은 품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으므로 우리에게도 생각하고 사랑하고 창조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We allow ourselves the full awareness of this truth, that we are created in God’s image and likeness, and strive to deepen that awareness within ourselves. God lovingly sustains us and calls us to growth. So, we are drawn to make a loving response to God. We want to respond to His love.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느님과 같은 품성을 가진 존재로 빚어졌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 인식이 우리안에서 더 깊어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시며 우리의 성장을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느님께 사랑으로 응답을 드려야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Coming out of the preparation days we are in touch with God’s creative love and its movement to glory. Our desire is to learn our unique role, or unique and original purpose, and to serve it faithfully. This is the true desire of our heart, the desire that God planted, and we want deeply to grow into it.

준비기간을 지나며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적인 사랑과 영광을 향한 사랑의 움직임과 접촉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고유의 역할 또는 본래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며, 또 그것을 충실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갈망으로, 우리는 그 갈망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We end the Preparation Days with the meditation on the Principle and Foundation which is one of the two important bookend meditations for the exercises. It is our reason for being. Here is a contemporary translation.

우리는 영신수련의 두가지 중요한 시작과 마침 묵상들 중 하나인 원리와 기초를 묵상하면서 준비기간을 마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현대에 맞게 번역한 원리와 기초입니다.

**SLIDE THREE:** The goal of our life is to live with God forever. God, who loves us, gave us life. Our own response of love allows God's life to flow into us without limit.

우리 삶의 목적은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응답은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무한하게 흘러들어오도록 합니다.

All the things in this world are gifts of God, presented to us so that we can know God more easily and make a return of love more readily.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선물로, 하느님을 더 쉽게 알고 그분께 즉시 사랑을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As a result, we appreciate and use all these gifts of God insofar as they help us develop as loving persons. But if any of these gifts become the center of our lives, they displace God and so hinder our growth toward our goal.

따라서, 우리는 이 선물들에 대해 감사하고 이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선물들중 무엇이든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한다면, 그것들이 하느님을 대신하게 되어 사랑이라는 목적을 향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Remember, love is our goal. God is love.

사랑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In everyday life, then, we must hold ourselves in balance before all these created gifts insofar as we have a choice and are not bound by some disordered attachment that hinders us from fully relating to God. We should not concentrate our desires on health or sickness, wealth or poverty, success or failure, a long life or a short one. For everything has the potential of calling forth in us a deeper response to our life in God.

그리하여, 일상 안에서, 우리는 가능하면 하느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무질서한 애착에 묶이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에 대해 균형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질병보다 건강을, 가난보다 부를, 실패보다 성공을, 단명보다 장수등을 더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우리 내면을 자극해서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 더 깊이 응답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Our only desire and our one choice should be this: I want and I choose what better leads me to the deepening of God's life in me.

우리가 오직 원하고 선택해야하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이 내안에 깊어지도록 더 잘 이끌어주는 것을 원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That end is to praise, reverence, and serve God.

그 목적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So — 그러므로-

**SLIDE FOUR:** We become more aware that God created us in love, and that He desires to be loved by us. He gifted us with everything on this planet through His love for us. These are gifts that are to be used to bring us closer to God and to allow us to build His Kingdom.

슬라이드 4: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사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더 잘 알게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쓰여져야하는 선물들입니다.

We see that each created thing on earth has the potential to call forth in us a more loving response to God and to the happenings in our daily lives.

지상에 있는 개개의 피조물은 하느님과 일상의 삶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안에 더 사랑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But this is dependent on our proper use of these gifts. Any disordered use of these or disordered attachment to them can interfere with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hinder our spiritual growth.

하지만 그것은 이 선물들을 우리가 얼마나 적절히 사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것들을 무절제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집착하게 되면 하느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When we allow disordered loves and pre-occupations to clutter our hearts, we find ourselves "out of balance", unhappy, and discontented. Disordered attachments obviously

can be to things we think of as negative in our lives, for example excess alcohol or drugs or sex, excess desire for money or obsession with power or career goals that dominate our decisions. But disordered attachments can be to things we think of as positive, such as our children, our church life or our family. If our attachment to any of those positive things in our lives is so disordered that we let that drive our decisions rather than our relationship with God; it can be just as deadly as a negative attachment.

무질서한 사랑과 선입견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도록 내버려둘 때, “균형이 깨지고”, 불행하며 불만스러워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무질서한 애착들은, 예를 들어 지나친 술이나 마약류, 섹스, 또한 우리의 결정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돈에 대한 지나친 욕망, 권력이나 경력 목표 (career goal)에 대한 집착 같이, 우리가 살면서 분명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질서한 애착은, 우리의 자녀들, 신앙생활 또는 가족과 같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것들 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긍정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이 매우 무질서하여 하느님과의 유대보다 우선해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이것 또한 부정적인 애착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We ask for the grace to become indifferent, to have a holy indifference, to the choices that confront us so that our desire is to want those things that deepen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His presence in us. Holy indifference leads us to make choices that we discern are what God wants for us.

우리는 우리앞에 있는 선택에 대해 우리가 초연해지도록, 거룩한 불편심<sup>1</sup>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갈망이 하느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현존이 우리안에서 더 깊어지게 하는 것들을 원하도록 하는 불편심의 은총을 청합니다. 거룩한 불편심은 우리가 식별을 통해 선택한 것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것들이 되도록 이끕니다.

#### **SLIDE FIVE: First Week** 슬라이드 5: 첫째 주

If the Preparation days had a tag line it would be “Created in love”

Then the tag line for the 1<sup>st</sup> Week would be “Sustained in Love”. However most of us approach our sinfulness as Peter does in this quote from Luke 5:8: Peter fell down at Jesus’ knees and said, “Leave me Lord, for I am a sinful man.”

만일 준비기간에 이름표가 있다면 “사랑안에서 창조되다” 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주의 이름표는 “사랑안에서 보호되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베드로가 루가복음 5 장 8 절에서 했던 말과 같이 우리의 죄에 접근합니다. :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

<sup>1</sup> 불편심을 갖고 식별을 할 때 느끼는 평온함을 말함-역주

In the first week Ignatius has us look at the mystery of sin. He has us prayerfully consider:

- The sin of the angels
- The sin of Adam and Eve
- The effect of the sin of one person - The sin of the world
- Meditation on Hell
- Sin - a disordered use of creation

첫째 주에서 이냐시오는 우리에게 죄의 신비를 보게 합니다. 그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 \* 천사의 죄
- \* 아담과 이브의 죄
- \* 한 사람의 죄가 주는 영향 - 이 세상의 죄
- \* 지옥에 대한 묵상
- \* 죄- 창조물의 무질서한 사용

We know that we are loved, unconditionally loved by God including all of our flaws and sinful tendencies.

우리의 모든 결점과 죄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I once talked to my spiritual director about how “God must be disappointed in me”. She corrected me and said “God loves you so He cannot be disappointed in you. He might be disappointed in what you have done, but He will never be disappointed in you.”

한번은 나의 영적 동반자에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 동반자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실망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에게 실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정정해 주었습니다.

As a loved sinner we stand at the center of the 1<sup>st</sup> Week of the exercises. Although sin provides the focus, the 1<sup>st</sup> week really dwells on love, God’s love, which is greater than human sin. We are loved sinners…let’s stop for a moment and savor this…we are loved sinners. (Pause a few moments for the savoring.)

These meditations show us that our sinfulness complicates our desire to be faithful to the vision of God’s love.

첫째 주 수련중에 우리는 사랑받는 죄인임을 표방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죄가 초점이기는 해도, 사실상 첫째 주는 인간의 죄보다 더 큰 하느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잠시 멈추어 이것을 음미하십시오… 우리는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음미하기 위하여 잠시 침묵하십시오.)

이 묵상들은 우리의 죄 많음(죄를 짓게 되는 속성)이 하느님 사랑의 비전에 충실하고자 하는 우리의 원함을 방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hese meditations also make us more aware of our sinfulness, and that it cannot be overlooked. Our sins are like a break in the foundation and need to be repaired.

또한 이 묵상은 우리의 죄 많음에 대해 더 깨어있도록 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죄들은 기초에 금이 간 것과 같아서 보수해야 합니다.

In meditating on our own sinfulness, we are led to see the global effect of sinful choices. We see that our sinful choices make us a part of the problem. If we hear ourselves making comments such as these:

- It's not affecting me ...
- I can't do anything to help ...
- Why should I get involved ...

we might be passively ignoring our sinfulness to live an easier life. Richard Rohr, a Franciscan theologian states: "We are all guilty with one another's sin and not just our own. We are all good with one another's goodness and not just our own. My life is not just about me."

우리의 죄 많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죄의 선택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선택들은 우리를 그 문제의 일부분이 되도록 만듭니다. 만일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어..., 왜 내가 관여해야 하지?..." 등의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죄 많음을 수동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프란치스칸 신학자인 리처드 로어(Richard Rohr) 신부는 "우리는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서로의 죄에 대해 모두 유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함만이 아니라 서로의 선함으로 모두 선합니다. 나의 삶은 오직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We feel the tugging on our heart that attracts us to God. We feel the peacefulness in the invitation to a freedom of holy indifference. But we realize that this is not the path that we have always chosen.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로 끌어당겨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거룩한 불편함이 주는 자유로의 초대에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 길을 선택해오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달습니다.

The first week brings our sins to the forefront of our prayer, and in doing so we may respond with feelings of shame, guilt, fear, or sorrow.

첫째 주는 우리의 죄를 가장 우선적인 주제로 기도해야 하므로,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응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These powerful emotions may lead us to “do the right thing.” If we allow these emotions of shame, guilt, and fear to dominate the process of our reconciliation with God, then we may not see the tremendous amount of mercy and love God has for us.

이 강력한 느낌들은 우리를 “옳바르게 기도 하도록” 이끌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이 우리의 하느님과 화해 과정 전체를 지배하게 둔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엄청난 자비와 사랑을 느끼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Worse, it may lead to desolation if we allow these emotions to dominate our prayer.

설상가상으로, 이 느낌들이 기도를 지배하도록 둔다면 영적 실망의 상태로 될 수 있습니다.

Even though these emotions may be unpleasant we cannot ignore them. We also need to learn to look at our sinfulness through the eyes of love, the same way God does, the way a parent does with a child. It is the presence of God’s grateful love that reveals our sins to us. We cannot do it alone. Remember: We are loved sinners.

The realization of this is a grace. God has drawn near to us, and we recognize how far we have strayed from the mark.

비록 이 느낌들이 달갑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듯이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의 눈을 통해 우리가 지은 많은 죄들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하느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은총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곁에 와계시며 그로인해 우리가 얼마나 멀리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부터 떨어져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Through God’s love our sins are revealed to us, and God helps us to name our sins. By clearly naming them we identify them, and we own them. We begin to look for the sources of these sins, our disordered attachments, so that we can recognize them in the future.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느님은 우리의 죄에 이름을 붙이도록 도와주십니다. 죄에 분명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가 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 무질서한 애착들의 근원을 찾기 시작함으로써 앞으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볼수 있게됩니다.

In knowing God’s love and mercy our feelings of shame, guilt, and sorrow are replaced by the feelings of gratitude and love when we come to know and accept God’s love, mercy and forgiveness.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는 가운데,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에 대해 알게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슬픔의 감정들은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Through reconciliation with God we begin a new way of praying. We pray for a deepening of our God-given gifts, and search for more gifts that we may not realize we have.

하느님과의 화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기도의 길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 더 깊어지기를 기도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으나 우리가 갖고있는 더 많은 은총을 기도하며 찾습니다.

**SLIDE SIX:** This 1<sup>st</sup> Week of the exercises will not reveal all. This takes time. It requires our persistence and trust in God. It is a life's journey to open ourselves to God's revelation.

슬라이드 6: 이 첫째 주의 수련들이 모든것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며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꾸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계시에 따라 우리자신을 여는 것은 생애를 걸친 여정입니다.

Each of our sins has been revealed to us by God, and this has been done through His love and for the purpose of healing us. Even though we sin, God continually forgives us and calls us daughters and sons.

각각의 우리 죄는 하느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치유할 목적을 가진 그분의 사랑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The grace asked for in the first week is a change from shame and guilt to a growing and intense sorrow and tears for our sins. In some way this grace is a sharing in God's own confusion and sorrow for the long history of human ingratitude.

첫째 주에 청하는 은총은 우리의 죄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더 성숙하고 강한 슬픔과 눈물로 변하도록 청하는 것입니다. 어떤면에서 이 은총은 인간의 오랜 배신의 역사에 대한 하느님의 혼란과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The graced confusion that arises here is a wonder and awe in us that after this continued ingratitude, the Creator-God continues to love us in care and hope instead of angrily destroying us.

We begin to see that we are called by Christ to be part of the solution.

여기서 일어나는 은혜로운 혼란은, 인간의 계속적인 배반후에도 우리 창조주 하느님께서서는 분노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대신 희망과 보살핌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것에 대해, 우리 안에 생기는 경이로움과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의해 그 혼란의 해결에 참여하도록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되기 시작합니다.

We come out of this week with a deeper gratitude for God and the desire to give God priority in our lives, a desire to keep our lives in balance and most of all, to experience God's mercy and forgiveness for us sinners.



We become aware that we are a forgiven crucifier.

첫째 주를 마치며 우리는 하느님께 더 깊게 감사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느님께 우선권을 드리고, 우리의 삶에 균형을 유지하길 원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죄인들을 위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길 갈망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박해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George Aschenbrenner, SJ, states - "The first week brings you to your knees before Christ on the cross. He is God's forgiveness! He is your life! He has saved you from death and sin!"

예수회 George Aschenbrenner 신부는 - "첫째 주는 당신을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용서입니다! 그는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죽음과 죄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Your gratitude and commitment to Jesus lays the foundation for your conversion into a new identity. Now you realize that you can be faithful, but never on your own, but always and only in Christ.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감사와 헌신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뀔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One of the meditations is in the form of a colloquy before Jesus on the cross. Remember that a colloquy is a conversation with God. During this colloquy we are posed the questions:

- What have I done for Christ?
- What am I doing for Christ?
- What ought I do for Christ?

These questions may not be answered immediately, but we can ask God to show us the answers during our retreat. Keep referring to them throughout the retreat. I'd like to give an example from scripture of God's mercy and forgiveness.

여러 묵상들 중 하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앞에서 담화하는 것입니다. 담화는 하느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담화를 할 동안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곧바로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정기간 동안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하느님께 청할 수 있습니다. 피정을 할 동안 계속해서 그 질문들을 떠올리십시오.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에 관한 성경 속 예를 들고자 합니다.

### **SLIDE SEVEN: The Prodigal Son** 슬라이드 7: 방탕한 아들

(Show Rembrandt's painting of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and read the gospel, Luke 15: 11-24, "The Prodigal Son" —)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여주며 루카복음 15:11-24 절 "돌아온 탕자"를 읽는다.)

One of the translations for the word inheritance is Life.

So, when the young boy asked for his inheritance, he was asking for his life, and he wanted to live it completely on his own. He was exercising his free will to choose.

유산(inheritance)라는 단어는 삶(물려받은 삶)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그의 유산을 요구했을 때 그는 자신만의 삶을 요구하고있었던 것이며 그는 온전히 독립해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선택의 자유를 실험하고있었습니다.

Henri Nouwen saw a reproduction of Rembrandt's painting "Return of the Prodigal Son". He was inspired to travel to St. Petersburg, Russia, to see the painting in real life. He ended up spending 5 days sitting in front of the painting prayerfully reflecting on what he saw. He ended up publishing his thoughts and reflections of these 5 days in a book.

헨리 나우웬은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의 복제품을 보았습니다. 그는 실제 그림을 보기위해 러시아 세인트 피터스버그로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찰하며 그 그림 앞에 앉아 5 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5 일간의 묵상과 생각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The following quote is from an interview with Henri Nouwen just prior to publishing his second book on the parable.

아래에 인용은 그 비유에 대한 두번 째 책이 출간되기 직전 헨리 나우웬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Henri Nouwen, all from Home Tonight: Further Reflections on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Before now I was never able to see how the love of the father embraced not just the return of his younger child but also his running away from home...Perhaps the whole movement of leaving and returning is only one movement rather than two, especially as it is experienced in the loving heart of the father. This is not a parent who says, "Don't go." That

kind of statement is not in keeping with the spirit of this story. The spirit of the story is different. It reads, “Yes, son. Go. And you will be hurt and it will be hard, and it will be painful. And you might even lose your life, but I will not hold you back from taking that risk. When and if you come back, I am always here for you. But I’m also here for you now in your leaving. Yes, we belong together, and I am never separated from you.” This aspect of divine Love is, for me, a critical life-connection.”

— 헨리 나우웬, Home Tonight 으로 부터: 탕자의 비유에 대한 추가 성찰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가 작은아들이 돌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집을 나간것도 사랑으로 감싸안았다는 것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경험하였을 때, 어찌면 떠남과 돌아옴이라는 전체 움직임이 두개였다기보다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가지 마라.”하고 말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이 이야기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정신은 다릅니다. “그래, 아들이 가거라. 너는 상처받을 것이고 힘들것이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어찌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가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오마. 네가 언제든 돌아온다면 나는 항상 너를 위해 여기에 있을것이다. 네가 떠나는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 여기 있다. 그래, 너와 나는 함께하고 나는 결코 너로부터 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신적인 사랑의 관점은 나에게 삶과 삶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관점인 것입니다.”.

We can see that is how God is with us. He has gifted us with free will, even knowing that sometimes we will use that gift to turn away from Him. And yet he patiently calls for us and remains with us even in the turning away. And then He rejoices with us at our return.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 알수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을 돌렸을 때에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참을성 있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십니다.

### **Speak to the painting** 그림에 말하기

(Show the painting of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and pose these thoughts, pausing between each one for some reflection time.)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여주고 아래와 같은 생각거리들을 제시하십시오. 각 생각거리 사이에 성찰하며 잠시 멈추게 하십시오.)

- Look at the boy, his clothes, his hair, his feet and shoes
- 아들을 보며 옷과 머리와 발 그리고 신발을 바라보십시오.
- Feel his shame, his guilt, his sorrow
- 그의 수치심과 죄책감, 아픔을 느끼십시오.
- See him drop to his knees and say forgive me Father
-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말하는 그를 보십시오.
- Know his tears, maybe cry with him
- 그의 눈물을 이해하고 그와 함께 울어도 됩니다.
- Now feel the embrace of the father
- 이제 아버지의 포옹을 느낍니다.
- Feel his hands on your shoulders
- 당신의 어깨 위에 있는 아버지의 손을 느끼십시오.
- Feel the softness of his clothes on your face as he pulls you close
- 아버지가 당신을 끌어당길 때 얼굴에 닿는 아버지 옷의 부드러움을 느끼십시오.
- Hear his voice say I love you my child, welcome home
-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집에 잘 돌아왔다” 고 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 Feel his tears of joy fall on your head
- 당신의 머리로 떨어지는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을 느끼십시오.
- Know His unconditional love for you always.
- 늘 당신을 향하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십시오.

Most of the time, reading this passage we envision ourselves as one of the two sons. And we marvel at the love and generosity of the father. We can ask the question: How does he do that? Henri Nouwen suggests an answer to that question.

대부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며 우리자신을 두명의 아들중 하나로써 상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관대함에 경탄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헨리 나우웬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And in the passage of return there is a further step to be taken. The return is not just about you and me, but it has to do with our response to another person's resentment. Seeing what we do, and working to change, there is an urge to critically judge resentment seen in others. This is important because we each must choose our reactions to the anger and pain of others. It is when we are primarily giving thanks for our lives that we have the potential to receive another's anger and judgment while remaining upright and letting it move through us. When we are looking for occasions to be grateful we hear anger and pain in a new way and can more readily accept it as being theirs and not ours. It is in that spirit that we try simply to receive it without judgment. This is only possible as we adopt thanksgiving as our way of living. Otherwise their resentment connects with ours and that only makes things worse. In the grateful life we no longer listen to another's resentment as an affirmation of our own. Nor do we judge. We simply receive it in love."

돌아옴의 길에는 더 해야할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돌아옴은 단지 당신과 나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또다른 사람의 불만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있으며,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분노와 아픔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려는 충동이 생깁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의 분노와 아픔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삶에 대해 감사를 할 때, 굳건히 버틸 수 있고 비판이 우리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불만과 비판을 받아들일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가진다면 다른 사람들의 분노와 아픔을 새로운 방식으로 들을 수 있고 그 분노와 아픔이 우리의 것이 아닌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단순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감사로 받아들일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불만이 우리의 불만과 연결되어 일들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감사하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불만을 더이상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게됩니다. 또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Henri Nouwen, all from Home Tonight: Further Reflections on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Your journey with the first week meditations is unique to you. You want to open yourself to all that God offers you during this movement. Remember God is loving you and wanting you to examine your life through the lens of God's love.

첫째 주 묵상을 하는 동안 당신의 여정은 당신만의 고유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 기간동안 하느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모든것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하느님의 사랑의 눈으로 당신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Now we can open the discussion to any questions or comments.**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